

## 청 황실 사조(祀竈) 의례의 특징과 의미

-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 『절절호음(節節好音)』을 중심으로\*

임 미 주\*\*

### 국문초록

만주족 정권이 수립한 청 황실은 역대 왕조와 구별되는 독특한 사조(祀竈) 문화를 구축하였다. 사조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창작된 연극인 월령승응희를 공연하여 고유의 사조의례를 형성하였다. 월령승응희 공연이 궁정 의례로 정식 제정되고 규범화되어 가장 활발히 공연된 건륭 연간에 월령승응희 작품집인 『절절호음(節節好音)』에 수록된 여덟 작품의 ‘사조절희(祀竈節戲)’는 모두 사조 관련 고사가 전하는 음자방(陰子方), 여몽정(呂蒙正), 범석호(范石湖) 세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조신 제사 및 다양한 사조절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청 황실의 사조의례와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다.

청 황실은 초기에는 명나라 제도를 계승하여 매년 연말에 태묘의 서쪽 아래채에서 오사(五祀)를 합제하다가, 순치 8년에 맹하에 조신제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제도화 되었다. 강희제 이후 국가 사전으로서의 사조제사는 폐해지고, 옹정 13년부터 황실의 사적제사로서 매년 음력 12월 23일에 제사를 올렸다. 월령승응희에는 청 궁정 사조일의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청 궁정이 민간의 사조 풍습을 수용한 결과로서, 민간과 관방의 사조 풍습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청 궁정의 사적의례로서 조신제사는 황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 제사이자 황후도 함께 참여하는 부부합제 형식으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었던 민간의 사조 풍습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황제와 황후가 함께 참여하는 청 궁정 부부합제의 사조의례의 특징은 월령승응희 속에 부부가 함께 조신 제사를 지내거나 조군과 조군부인을 함께 모시는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청 궁정 사조일에 공연된 월령승응희 작품을 통해 민간과 관방의 사조 문화의 융합, 한족과 만주족 문화의 융합, 유불도 등 다양한 신앙 종교의 수용, 연극을 궁정 예약으로 수용 확대한 청 궁정의 사적의례의 포용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 통치자가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궁정, 대규모로 확대된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및 문화에 대한 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이상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청 황실, 조신, 사조의례, 월령승응희, 『절절호음』, 사조 풍습, 다문화 융합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01046341)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 whiteangel32@daum.net

## | 목 차 |

I. 서 론	Ⅲ. 사조절희에 반영된 청 궁정 사조문화
Ⅱ. 청 궁정 사조절희 개괄	Ⅳ. 결 론

## I. 서 론

중국에서 조신(竈神)은 부뚜막신 혹은 부엌신으로 불리며 가족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상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넓은 계층이 널리 숭배하였다.

특히 만주족 정권이 수립한 청 왕조는 초기에는 명나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연말에 오사(五祀)를 함께 제사하다가, 순치 8년에 맹하(孟夏)에 조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강희 연간에 관방의 국가사전으로서의 조신 제사는 폐해지고, 옹정 13년부터 매년 음력 12월 23일 곤녕궁(坤寧宮)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적의례로 탈바꿈하게 된다. 비록 국가 제사에서 황실의 사적제사로 그 외적 중요도는 줄어들었지만, 황실 일가의 한 해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며 가장으로서 황제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여 역대 왕조와 구별되는 청 황실만의 독특한 사조 문화를 구축하였다. 특히 청 황실에서는 사조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창작된 월령승응희(月令承應戲)<sup>1)</sup>를 공연하여 청 황실 고유의 사조의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간 조신 신앙 및 풍습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민간 신앙의 측면에 편중되어 진행<sup>2)</sup>되었고, 월령승응희도 전체에 대한 연구<sup>3)</sup>나, 원단·단오·중추<sup>4)</sup> 등 주요명절에 공연된 작품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관방의 조신 신앙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제사 및 궁정의 조신 숭배와 전승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청 황실의 사조 풍습은 중국 한족 왕조의 제례를 전승 수용하면서도 만주족의 특징을 융합하고 있으며, 청 황실 예악문화의 정수이자 역대 왕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월령승응희라는 뚜렷한 특징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 의례적 특성 및 함의를 탐구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월령승응희 공연이 궁정 의례로 정식 제정되고 규범화되어 가장 활발히 공연된 건륭 연간에 월령승응희 작품집인 『절절호음(節節好音)』에 수록된 여덟 작품의 ‘사조절희’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 1) 건륭 연간부터 원단에서 제석까지 일 년 12달 중 여러 세시 명절에 따라 공연하도록 제도화된 ‘월령승응희’는 현재까지 극목 300여 종, 극본이 190여 종 전하는데,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의례·민속·문화 방면의 내용이 내포되어 청 황실의 의례 문화 및 중국의 명절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 2) 중국의 연구로는 楊福泉, 廖海波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국내 연구로는 최숙경, 김광언, 김우석, 장요공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3) 중국의 연구로는 羅燕, 張瑩, 劉鐵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일본의 연구로는 磯部佑子の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로는 신지영, 이창숙, 임미주의 연구가 있다.
- 4) 원단절희 연구로는 傅惜華, 이창숙, 李躍忠이, 단오절희 연구로는 劉鐵이, 중추절희 연구로는 傅惜華, 이창숙, 이현정이 대표적이다.

그 속에 반영된 청 황실의 사조 풍습을 분석하고, 관련 역사 기록 및 공연 관련 당안(檔案)을 함께 활용하여 중국 조신 신앙 속 청 황실 사조의례가 가진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청 궁정 사조절희(祀寵節戲) 개괄

역대로 궁정의 연회는 항상 ‘오례(五禮)’로 대표되는 국가의례와 더불어 거행되었다.<sup>5)</sup> 청 궁정 안 연극 공연도 궁정의례의 일부분으로 황실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시종일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 예악 이념에 바탕을 두고, 공연 전 거행되는 의례 절차를 통하여 예를 실현하고, 그 후 진행되는 연극 공연을 통하여 악을 구현하였다. 『대청통례(大清通禮)』·『대청회전(大清會典)』 등을 살펴보면, 청대의 예제는 전대에 비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내용도 한층 복잡해졌다. 특히 청대 예악은 악부(樂部)의 음악뿐만 아니라 내무부 소속의 남부(南府)와 경산(景山)에서 관장하는 궁정 연극 및 기예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건륭 56년 9월 5일의 유지에 따르면 “남부의 학예인(學藝人)들은 국가 세시 연회에 사용되는 음악에 필수적이다.”<sup>6)</sup>라 하였다. 건륭제는 이처럼 연극도 ‘악(樂)’의 개념에 포함시켜, 시(詩)·악(樂)·무(舞)를 함께 예악의 ‘악’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청 통치자의 궁정연극의 예악적 활용을 보여준다.<sup>7)</sup>

청 궁정에서는 음력 12월 23일 사조일에는 조신제사를 소재로 한 연극을 감상하면서 명절을 향유했다. 청 궁정 연극기구 관련 전문서인 『청승평서지략(淸昇平署志略)』에 따르면, “사조절 궁정에서 공연된 작품으로는 「태화보최(太和報最)」, 「사명석희(司命錫禧)」, 「몽정제조(蒙正祭寵)」, 「조신기취(寵神既醉)」가 있고, 궁중에서 이날을 중시하여, 승평서로 개혁한 후에도 매년 공연을 하였다.”<sup>8)</sup>고 한다.

한편,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된 건륭연간의 월령승응희 작품집인 『절절호음』<sup>9)</sup>에는 총 여덟 작품의 사조절희가 수록되어 있다. 그 속에 청 말까지 꾸준히 공연되며, 다양한 극본이 전하는 「몽정제조」 뿐만 아니라, 타 소장처에서는 볼 수 없는 일곱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월령승응희 공연이 궁정 의례로 정식 제정되고 규범화되어 가장 활발히 공연된 건륭 연간의 작품들로 추정되어, 초기 사조절희 본연의 특징을 파악하고, 후기 전승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사조절희의 변화 전승 및 청 황실 사조 문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5) 사진실,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왕실의 연회축제』, 태학사, 2017, 26~34쪽.

6) “南府學藝人等, 乃國家歲時宴會備用音樂所必需。”(丁汝芹, 『清代內廷演戲史話』,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22쪽에서 재인용).

7) 曾凡安, 『晚清演劇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10, 416~417쪽.

8) 王芷章, 『淸昇平署志略』, 北京: 商務印書館, 2006, 73쪽.

9) 『節節好音』은 元旦(18종), 上元(20종), 燕九(8종), 賞雪(12종), 祀寵(8종), 除夕(20종) 등 송구영신 기간에 속하는 6종류의 명절에 공연된 86종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단일 극본집으로는 가장 많은 월령승응희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월령승응희 극본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황제께 진상할 목적으로 사색사본으로 제작된 매우 진귀한 판본이다(임미주, 「청 궁정희 『節節好音』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3~54쪽에서 재인용).

〈표 1〉 『節節好音』 수록 사조절희 현황

작품명	책수	공연시간	음악	등장인물
「蒙正祭竈」	30책	二刻五分 (32분30초)	崑腔 平調	土地, 土地婆, 呂蒙正, 劉夫人
「喜滿門庭」			崑腔 平調	四醜梅香, 四俊梅香, 八院子, 二廚子, 一乳母, 呂蒙正, 劉夫人
「仁孝神欽」	31책	一刻十分 (20분)	崑腔 羽調	梅香, 竈君夫人, 竈君
「東廚錫福」			崑腔 羽調	陰子方, 王氏, 竈君
「竈君傳諭」	32책	一刻十分 (20분)	弋腔 商調	八仙童, 竈君, 十六仙童, 金銀二藏神
「儒士安貧」			弋腔 仙呂宮	梅香, 石湖妻, 范石湖
「藏神顯聖」	33책	一刻十分 (20분)	弋腔 黃鐘宮	十六仙童, 金銀二藏神, 梅香, 石湖妻, 竈君, 八仙童
「祿位齊豐」			弋腔 仙呂宮	八院子, 范石湖, 八梅香, 石湖妻, 竈君, 八侍從

『절절호음』 수록 사조절희 작품들은 두 작품이 한 책(冊)을 구성하고, 책 서두에 공연 시간을 기록하여, 한 책에 수록된 두 작품이 함께 공연되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제30책 「몽정제조(蒙正祭竈)」, 「희만문정(喜滿門庭)」은 북송시대 선비 여몽정(呂蒙正)이 조군(竈君)에게 제사지낸 이야기를 다룬다. 「몽정제조」에서는 여몽정이 깨어진 가마에 거처하며 빈궁한 처지에서도 납월 23일에 부인 유씨(劉氏)와 함께 물 한 그릇, 향 한 개, 시 한 수로 조군에게 제사를 지낸다. 연이어 「희만문정」에서는 여몽정이 출세한 후, 납월 23일에 하인들에게 제사를 잘 준비하게 명하고, 부인, 아들과 함께 조군께 제사지내며 과거 빈궁했던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다.

여몽정은 송나라 태평천국(太平興國) 2년(977)에 장원급제하여 후에 재상까지 지낸 실존 역사 인물이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거지가 되어 사원에서 거주하였는데, 사조일에 사람들이 조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자신은 바칠 것이 없어 사원 안의 사탕을 조군의 입 안에 넣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후인들이 이를 기념하여 깨로 사탕을 만들어 ‘조당(竈糖)’이라고 부르며, 조신제사에 바쳤다고 한다.

청 궁정 어용사인들은 역대 여몽정 관련 민간 전설과 연극 작품의 기초 위에, ‘사조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사조 관련 전설과 풍습을 전사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송원남희, 원 잡극에서는 여몽정이 조신에게 제사지낸 날짜가 모두 납일(臘日, 음력 12월 8일)이었는데 반해, 「몽정제조」, 「희만문정」에서는 납월 23일로 변한 것이 눈에 띈다.

제31책 「인효신흠(仁孝神欽)」, 「동주석복(東廚錫福)」은 조신에게 정성을 바쳐 복록을 누린 것으로 유명한 후한(後漢) 사람 음자방(陰子方)의 사적을 다루고 있다. 「인효신흠」에서는 납월 23일 조군부인(竈君夫人)이 조군에게 효제화목하고 청빈낙도한 음자방을 추천하고, 조군은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여 장차 그에게 관작과 영예를 더할 것이라고 약조한다. 「동주석복」은 가난한 음자방 부부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황양(黃羊)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자, 조군이 강림하여 장차 오남이녀를 낳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의 원형은 『후한서·음식전(後漢書·陰識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제(宣帝) 때에, 음자방이

라는 사람이 효성스럽고 인덕이 있었다. 납일날 아침밥을 짓다가 조신이 나타나자 음자방은 재배하고 복을 받았다. 집에 황양이 있어 그것으로 제사 지냈다. 그 때 이후로 갑자기 거부가 되었다. 지식 삼대는 변창하였다. 이에 후에 자주 납일날 조신에게 황양을 바쳐 제사하였다.”<sup>10)</sup>라 하였다. 다만 원래 납일에 제사를 지냈던 음자방이 청대 월령승응희에서는 역시 납월 23일에 제사를 지낸 것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제32책 「조군전유(竈君傳諭)」, 「유사안빈(儒士安貧)」과 제 33책 「장신현성(藏神顯聖)」, 「녹위제풍(祿位齊豐)」 네 작품은 모두 조군이 송나라 사람 범석호(范石湖)에게 복을 내린 이야기를 다룬다. 먼저 제32책 「조군전유」와 「유사안빈」에서는 조군이 안빈낙도하며 아침하지 않는 범석호의 선행을 옥제에게 보고하여, 금은 두 덩이를 하사받아 장신(藏神)에게 이를 범석호 집 부뚜막 앞에 놔두게 명한다. 제33책 「장신현성」, 「녹위제풍」은 조군이 현신하여 범석호에게 금은 두 덩이를 하사한 연유를 설명하지만 범석호가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금은을 다시 거둬들이고, 대신해서 그 가정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범석호는 바로 남송(南宋)의 유명 관료이자 시인인 범성대(范成大)<sup>11)</sup>이다. 그의 『석호시집(石湖詩集)』에는 민간 백성들의 삶과 풍속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는데, 세시절령 풍속과 관련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납월촌전악부(臘月村田樂府)」 10首<sup>12)</sup>에는 송구영신 기간 농촌의 세시 풍속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sup>13)</sup> 그 중 제 3수인 「제조사(祭竈詞)」에는 송나라 때의 사조절 풍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녹위제풍」에서는 범석호의 등장시(登場詩)로 범성대의 시 「남당동야창화(南塘冬夜倡和)」<sup>14)</sup>의 “콩깍지 태워 따뜻한 방 안에서 창 밖 어두컴컴한데, 새로 시 지은이는 시로 화답하길 재촉하네. 패교(灞橋)의 비바람 속의 시상 물으니, 어찌 농가의 화롯불 옆에서 시 짓는 것만 같으리.”<sup>15)</sup>의 네 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역사 인물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범성대의 원래 「제조사」에서는 사조일이 송대 남쪽 지방 풍속을 반영한 납월 24일인데 반해, 『절절호음』에서는 납월 23일(혹은 小年節)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이 눈에 띈다.

상술한 『절절호음』 수록 사조절희에서는 모두 사조절 관련 고사가 전하는 음자방, 여몽정, 범성대 세 역사 인물이 조신에게 제사 지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평상시 음덕을 잘 쌓거나 선량한 생활을 한 문인들로서, 조신의 도움으로 후에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자가 된다. 이를 통해 조신 제사와 얽힌 다양한 사조절 풍속을 전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의 축복을 간구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또 문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 문장이나 곡사(曲辭)가 전아하고 문인적인 취향이 뚜렷하다.

10) 『後漢書』 「陰識傳」, “宣帝時, 陰子方者至孝有仁恩. 臘日晨炊, 而竈神形見, 子方再拜守慶; 家有黃羊, 因以祀之. 自是已後, 暴至巨富. 至識三世, 而歲繁昌, 故後常以臘日祀竈而薦黃羊焉.”

11) 범성대(范成大, 1126-1193)는 자가 치능(致能), 호는 석호거사(石湖居士)로, 평강(平江, 오늘날의 소주(蘇州)사람이다. 육유(陸遊), 양만리(楊萬里), 우무(尤袤)와 함께 남송 사대시인에 속하며, 일생동안 광서(廣西), 사천(四川), 절강(浙江) 연해에서 관리직을 수행하였다.

12) 제 1수는 「冬春行」, 제 2수는 「燈市行」, 제 3수는 「祭竈詞」, 제 4수는 「口數粥行」, 제 5수는 「爆竹行」, 제 6수는 「冬春行」, 제 7수는 「照田蠶詞」, 제 8수는 「分歲詞」, 제 9수는 「買癡呆詞」, 제 10수는 「打灰堆詞」이다.

13) 王驥, 「范成大與民間文化」, 王棟等編, 『民俗論叢』,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89, 96-98쪽.

14) 『石湖詩集』 卷5, 「南塘冬夜倡和」, “燃其烘暖夜窓幽, 時有新詩趣倡酬. 爲問灞橋風雪裏, 何如田舍火爐頭. 寒缸欲暗吟方苦, 凍筆難驅字更遒, 絕笑兒癡生活淡, 略無歲晚稻粱謀.”

15) 「祿位齊豐」, “燃箕烘暖夜窓幽, 時有新詩趣倡酬. 爲問灞橋風雪裏, 何如田舍火爐頭.”

한편, 현전하는 남부, 승평서 당안에 따르면, 상술한 『절절호음』 수록 작품 이외에도 「태화보최」, 「사명석회」, 「몽정제조」, 「조신기취」, 「성세유풍(盛世儒風)」, 「술가권세(術家勸世)」, 「조신현우(寵神顯佑)」, 「동주렴복(東廚斂福)」의 사조절회 극목이 전한다. 그 중 청 말까지 꾸준히 공연된 작품은 「태화보최」,<sup>16)</sup> 「사명석회」,<sup>17)</sup> 「몽정제조」 세 작품이다. 「태화보최」, 「사명석회」는 1절(折)로 구성된 단극(短劇)이고, 초기에는 『절절호음』 수록 여덟 작품처럼 두 작품이 함께 자주 공연되었으나, 후기에는 점차 따로 공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후기에 공연된 「몽정제조」는 내용상 『절절호음』 수록본과 대동소이하나 그 등장인물이 줄어들고, 곡사(曲辭)가 평이해진 경향이 있고, 한 작품만 단독으로 공연된 차이점이 있다. 『절절호음』 수록본과 후기 승평서 공연본 「몽정제조」의 차이점은 향후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그 논술을 생략한다.

한편, 현전하는 승평서(昇平署) 당안(檔案)에 따르면, 도광(道光) 2년부터 광서(光緒) 33년까지 거의 매해 음력 12월 23일에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때때로 24일에도 공연이 이루어진 기록이 전한다. 또 사조절회가 주로 공연된 장소로는 초기에는 자금성(紫禁城) 안 중화궁(重華宮 - 중화궁 내 소방재(漱芳齋) 1층 희대), 수강궁(壽康宮), 양심전(養心殿, 임시 희대) 등지에서, 후기에는 자금성 내 장춘궁(長春宮), 수강궁(壽康宮) 및 서원(西苑 - 오늘날의 중남해(中南海)의 이년전(頤年殿) 등에서 각각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시간은 대개 고정적이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향을 보이며, 대개 오전 8시 전후로 시작하여 오후 3~4시에 끝나는 그날의 전체 공연에서 맨 처음 공연되는 작품 [開場戲]으로, 대개 30분가량 공연되었다.<sup>18)</sup>

### Ⅲ. 사조절회에 반영된 청 궁정 사조문화

#### 1. 제사일(祭期)의 변화: 청 궁정의 민간 사조일 수용 반영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제사의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다. 황제는 의례 일정을 결정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우주의 시간을 결정하는 권력과 통치권의 핵심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sup>19)</sup> 따라서 제사일의 변화는 단순한 시기, 날짜를 넘어서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역대 중국의 통치자들은 조신을 ‘오사’ 또는 ‘칠사(七祀)’의 하나로 삼아 국가제사로 섬겼다. 『예기·곡례하(禮記·

16) 「태화보최」는 조군의 휘하에 있는 태화군(太和君), 옥지부인(玉池夫人) 등 속신(屬神)들을 청해 함께 납월 24일에, 한 해 동안 각 집안의 선악을 기록한 책을 조신에게 보여 검사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7) 「사명석회」은 조군, 조부인이 납월 24일, 각 속신들이 보고한 각 집안의 착한 일을 검사한다. 조군은 각 신들에게 선적(善籍)을 가져와서 그를 따라 하늘에 올라 보고하고, 옥제가 복을 내리도록 한다.

18) 사조절회의 구체적 공연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中國國家圖書館編,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의 1~50冊에 수록된 청 승평서 공연 당안을 참고하였다. 본고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표는 생략한다. 향후 사조절회의 전승을 전문으로 다룬 단독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9) 이블린S. 로스키(지), 구범진(역), 『최후의 황제들 -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글방, 2010, 379쪽.

曲禮下)』에 따르면 “천자는 오사를 제사하되, 한 해에 두루 행한다.”<sup>20)</sup>라 하여, 처음에는 조신 제사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예기』, 『회남자(淮南子)』 등 문헌에 명시된 조신의 제사 시기로는 맹하(4월), 계하(5월), 중하(6월), 맹동(12월)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일 년 중 크게 하계와 동계 두 시기에 조신 제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중국 관방의 조신 제사는 매년 하계와 동계 두 시기에서 점차 동계 한 시기에 집중되었고, 제사 횟수도 수차례에서 일 년 중 한 번으로 축소되어 마침내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 민간에서는 조신 제사일이 임의적이고, 그 횟수도 수차례이다가 진(晉)나라 이후 12월 23일, 24일로 점차 고정되게 된다.<sup>21)</sup>

한편 명 황실에서는 음력 4월 초여름에는 황궁의 주방에서 조신에게 제사하고, 연말에는 태묘(太廟)에서 오사를 함께 제사했다. 『明史』 卷50 「五祀」에는 그 제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홍무 8년) 예부(禮部)에서 상주하길 ‘五祀의 예는, 주(周), 한(漢), 당(唐), 송(宋)이 모두 달랐습니다. 오늘날 맹춘(孟春)에 호(戶)를 제사하는데, 황궁문의 좌측에 제단을 설치하여 사문(司門)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합니다. 맹하(孟夏)에는 조(竈)를 제사하는데, 황궁의 주방에 제단을 설치하고 광록시관(光祿寺官)이 주관합니다. 계하(季夏)에는 중류(中霤)를 제사하는데, 건청궁(乾清宮) 섬돌에 제단을 설치하고 내관(內官)이 주관합니다. 맹추(孟秋)에는 문(門)에 제사하는데, 오문(午門)의 좌측에 제단을 설치하고 사문(司門)이 주관합니다. 맹동(孟冬)에는 정(井)을 제사하는데, 궁내 대포정(大庖井)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광록시관(光祿寺官)이 주관합니다. 사맹(四孟)은 태묘(太廟)를 섬기는 날이며 계하(季夏)는 토가 흥양한 날입니다. 희생은 소뢰(少牢)를 사용합니다.’라 하였다. 황제께서 허가하셨다.…… 또 연말에 오사를 태묘(太廟)의 서쪽 아래채에서 합제하고 태상시(太常寺)의 관리가 예를 행한다.”<sup>22)</sup>

이를 통해 명나라 때까지도 전대 풍속을 계승하여 여전히 여름과 겨울 연 2회 조신에게 제사지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에 바치는 희생은 양과 돼지만 바치는 ‘소뢰(少牢)’의 방식을 취하는 소사(小祀)에 해당하는 국가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주족 이민족이 통치한 청 왕조는 초기에는 명나라 제도를 계승하여 매년 연말에 태묘의 서쪽 아래채에서 오사를 합제하다가, 순치 8년에 맹하에 조신제사를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청사고(淸史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사(五祀)는 처음에는 옛 제도를 따라 매년 연말 태묘(太廟)의 서쪽 아래에서 합제하였다. 순치 8년에 제도를 정하였다.……맹하(孟夏)에 대포(大庖) 앞에서 사조신(司竈神)에게 제사하고, 계하(季夏)에는 태화전(太和殿) 섬돌에서 중류신(中霤神)에게 제사한다. 맹추(孟秋)에는 오문(午門) 서쪽에서 사

20) 『禮記』 「曲禮下」, “天子祭五祀, 歲遍.”

21) 李現紅, 「從祭竈時間的確立看竈神信仰文化的變遷」, 『民俗研究』 3, 山東大學, 2012, 50~60쪽.

22) 『明史』, 卷50, 志26, 禮4, 吉禮4, 五祀, “(洪武八年) 禮部奏: ‘五祀之禮, 周, 漢, 唐, 宋不一. 今擬孟春祀戶, 設壇皇宮門左, 司門主之. 孟夏祀竈, 設壇御廚, 光祿寺官主之. 季夏祀中霤, 設壇乾清宮丹墀, 內官主之. 孟秋祀門, 設壇午門左, 司門主之. 孟冬祀井, 設壇宮內大庖井前, 光祿寺官主之. 四孟於有事太廟之日, 季夏於土旺之日, 牲用少牢.’ 制可. 從定中霤於奉天殿外文樓前. 又歲暮合祭五祀於太廟西廡下, 太常寺官行禮.”

문신(司門神)에게 제사하고, 맹동(孟冬)에는 대포정(大庖井) 앞에서 사정신(司井神)에게 제사한다. 중류문(中霽門)과 오문(午門)의 두 제사는 태상시(太常寺)가 관장하고, 호(戶), 조(竈), 정(井) 세 제사는 내무부(內務府)가 관장한다. 이에 처음 나누어 제사하고, 다시 회복시킨 연고이다.”<sup>23)</sup>

그러나 강희제 이후 국가제사로서의 사조제사는 완전히 폐해지고, 옹정 13년(1735)에 황실의 사적제사로써 궁정 내에서 음력 12월 23일에 조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사고』 ‘길례(吉禮)’의 ‘오사’조에서는 “성조(聖祖, 강희제)께서 예전을 정리하신 것을 따라 다시 제사를 하지 않고, 전사(專祀)를 멈추었다. 오직 12월 23일 궁중에서 사조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sup>24)</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조궁사속편(國朝宮史續編)』 권31 전례(典禮)24 제사(祭祀) 5조에 실린 「(건륭)황제가 곤녕궁 사조일에 지은 시 [聖製坤寧宮祀竈日作]에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곤녕궁에서 제사하는 것은 조상의 가법으로, 만세에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 매년 원단에 탕서(tangse, 堂子)에서 예를 행하는 것도 그 뜻이다. 나의 시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넓다. 조신 제사는 고대 명문(明文)에도 없고 전묘(典謨)에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예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나라 이후에는 ‘칠사’의 하나로 천자가 행하는 제사가 아니어서, 할아버지(강희 61년간 한 번도 사조하지 않았다)께서는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선친께서 납월 23일을 정하여, 사조일에 곤녕궁에서 신께 제사 지내고, 남면하여 천지신위(天地神位)를 공경하여 구배례(九拜禮)를 올려 신년의 복을 얻고자 하였다. 동주(東廚) 조신의 신위 앞에서는 삼구례(三叩禮)를 행했다. 나는 육십년간 이를 지키고 잊지 않았다.”<sup>25)</sup>

이에 건륭연간의 작품집인 『절절호음』 수록 사조절희 여덟 작품에는 옹정 이래 납월 23일에 조신 제사를 지내는 청 궁정 사조의례를 반영하여 세 인물이 제사지내는 시간적 배경을 모두 납월 23일로 고쳐 쓰고 있다. 이는 청 궁정 사조의례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몽정제조」(납월 23일),<sup>26)</sup> 「희만문정」(납월 23일)<sup>27)</sup> 「인효신흥」(납월 23일),<sup>28)</sup> 「동주석복」(납월 23일),<sup>29)</sup> 「조군전유」(소년절 밤),<sup>30)</sup> 「유사

23) 『清史稿』 卷84, 志59, 禮3, 吉禮3, 京師詳祀條附五祀八蠟, “初循舊制, 每歲暮合祭太廟西廡下. 順治八年定制. ……孟夏大庖前祭司竈神, 季夏太和殿階祭中霽神, 孟秋午門西祭司門神, 孟冬大庖井前祭司井神, 中霽門, 午門二祀, 太常寺掌之, 戶, 竈, 井三祀, 內務府掌之, 於是始分祭, 旋復故.”

24) 『清史稿』 卷84, 志59, 禮3, 吉禮3, 京師詳祀條附五祀八蠟, “逮聖祖厘禮典, 再罷之, 並停專祀. 惟十二月二十三日, 宮中祀竈以為常.”

25) 『國朝宮史續編』 卷31, 典禮24, 祭祀5, 「聖製坤寧宮祀竈日作」, “坤寧宮祀神, 乃祖宗家法, 萬世遵依. 即每歲元旦, 詣堂子行禮, 亦其義也. 予詩所云, 祀神, 意包甚廣. 至祀竈古無明文, 不見典謨, 雖載禮記, 但漢晉以後所傳七祀之一, 非天子應行大典, 故皇祖未嘗舉行. (康熙六十一年中從未祀竈) 皇考乃定嘉平廿三祀竈日, 於坤寧宮祀神, 並南面敬設天地神位, 行九拜禮, 以迓新年福禧. 至於東廚竈神位前, 亦致三叩. 予六十年謹遵弗忽, 普祈年穀順城, 民物康和, 所謂有其舉之莫敢廢也. 而和韻諸人, 未解詩意, 率重於竈, 此不可不明示衷懷耳.”

26) 「蒙正祭灶」, “(呂蒙正白) 娘子! 今日是臘月二十三日, 名為小年節夜.”

27) 「喜潮門庭」, “(八院子白) 老爺方纔吩咐, 說今日二十三日, 祭竈之辰…….”

28) 「仁孝神欽」, “(竈君白)……今朝臘月二十三日, 正吾神上天奏事之辰.”

29) 「東廚錫福」, “(陰子方白)……今朝臘月二十三日, 家家祭竈.”

안빈) (소년절 밤),<sup>31)</sup> 「장신현성」(불명확), 「녹위제풍」(소년절 밤)<sup>32)</sup>에도 모두 소년절, 납월 23일에 조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민간에서 제조일은 대체로 한나라 이전에는 맹춘·맹하, 혹은 납일이었다가, 진(晉)나라 이후 음력 23일, 24일, 25일이 되었다. 리루루(李露露)의 『중국명절(中國節)』에서는 “북방에서는 음력 23일, 남방에서는 음력 24일에 제사하였다. 후자는 관방에서는 23일, 민간에서는 24일, 연해의 어민들은 25일에 제사한다.”<sup>33)</sup> 고 하였다. 특히 납일에 제사하는 풍속은 음자방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다 송대와 명대에 이르면 민간의 사조일은 납월 24일로 고정된다. 이에 송나라 범성대의 「제조사」에서는 “예로부터 납월 24일, 조군이 하늘을 향해 말하는 일 있다 하였네.”<sup>34)</sup>라고 하였고, 명나라 팽대익(彭大翼)은 “오늘날 오(吳)지역에서는 납월 24일에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르길 다음날 조신이 하늘에 올라 한 해의 일을 고하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 한다.”<sup>35)</sup>고 하였다. 주목할 점은 민간에서 납일 사조일의 유래가 되는 음자방, 「제조사」에서 송나라 납월 24일 조신제사를 묘사했던 범성대가 월령승응희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제사일이 모두 납월 23일로 청 황실의 사조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편, 청나라 민간에서는 사조일에 대해 ‘관삼, 민사(官三, 民四)’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즉, 황실을 비롯한 관가에서는 납월 23일, 민간에서는 24일에 조신 제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또 북경을 비롯하여 북방 지역에는 황실의 문화를 수용하여 23일에 사조 제사를 진행한 반면, 남방 지역은 명나라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24일을 사조절로 지냈다. 「희만문정」에는 당시 민간에서 지역에 따라 23, 24일로 조신 제사를 드리는 날짜가 각기 달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여덟 집사 : 나리께서 방금 분부하길, 오늘 23일, 조신께 제사지내는 날이니. 제품을 하나하나 잘 마련하여, 잘 모시라고 하셨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네.

주방하인 두 명 :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24일이 조신이 하늘에 오르시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23일에 제사 지내면 하루 빠른 게 아닙니까?

여덟 집사 :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23, 24일 각 지역 풍속이 다른 것일 뿐 모두 같은 것이야.

주방하인 두 명 : 그리 말씀하시면, 25, 26일도 늦지 않은 거네요.<sup>36)</sup>

비단 민간에서만 23, 24일로 사조일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청 궁정회에서도 후기로 갈수록 사조일 월령승응희 공연이 점차 납월 23일과 24일 병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현전하는 승평서 당안을 검토하면,

30) 「竈君傳諭」, “(竈君白)……今日小年節夜, 家家祭竈…….”

31) 「竈君傳諭」, “(石湖妻白)……度此小年節夜. 今日是祀竈之日.”

32) 「祿位齊豐」, “(范石湖白)……我范石湖, 去歲小年之夜, ……今日又是祭竈之日, ……要到竈前去祀竈了.”

33) 李露露, 『中國節』,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5, 289~290쪽.

34) 『石湖詩集』 卷30, 「祭竈詞」, “古傳臘月二十四, 竈君朝天欲言事.”

35) 『山堂肆考』 卷14, 「時令·拜慶」, “今吳中, 臘月二十四日祀竈, 謂翌日, 竈神朝天白一歲事, 故前期禱之.”

36) 「喜滿門庭」, “(八院子白) 老爺方纔咐, 說今日二十三日, 祭竈之辰. 一應祭品, 務要伺候妥協, 不得有悞. (二廚子白) 我們聽人說, 二十四日竈君上天, 如何二十三日就祭, 不早一日了. (八院子白) 你們不知道. 廿三廿四各處鄉風不同, 都是一樣. (二廚子白) 這等說起來, 就是二十五六也還不遲.”

사조일 공연은 도광 15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수강궁과 양심전에서 23, 24일 양일간 공연이 이루어졌다. 함풍 연간에는 다시 12월 23일로 하루만 공연이 되다가, 동치 연간에는 12월 23일이나 12월 24일 중 하루 공연이 펼쳐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 청 후기에 공연된 「몽정제조」 승평서본<sup>37)</sup>에서는 그 시간적 배경이 “오늘은 납월 24일로, 조신이 승천하시는 날입니다.”<sup>38)</sup>라고 바뀌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 후기 승평서에서 「몽정제조」와 함께 공연된 사조절희인 「태화보최」와 「사명석복」에서도 발견된다.

“【전강(前腔)】 푸른 연기 속 긴 옷칠 벗기고, 연기 맞아 얼굴이 솔바닥처럼 되네. 누가 맞난 국과 무침 맛보나 땀감 나르고 물 나르는 것 관리하고, 12월 24일 날 고대하네.”<sup>39)</sup>  
 오늘 납월 24일이니, 인간의 선악을 보고하는 때입니다.”<sup>40)</sup>

두 작품 모두 납월 24일을 사조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후기 승평서 시기 월령승응희의 사조일 실제 공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청 황실이 민간의 납월 24일 사조 풍속을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 청 궁정 공연상황을 기록한 승평서 당안에는 12월 24일에 「태화보최」, 「사명석복」을 공연한 사례<sup>41)</sup>를 찾아볼 수 있다.

## 2. 제주(祭主) : 곤녕궁 황제 · 황후 부부합제 반영

중국에서는 춘추시대부터 조신을 ‘오사’ 중 하나로 간주하고 국가제사로 섬겼는데, 『예기·곡례하(禮記·曲禮下)』에는 “천자가 오사에 제사를 지냈다.”<sup>42)</sup>고 기록하고 있다. 『진서(晉書)』에서는 『예기·제법(禮記·祭法)』을 인용하여 “오사는 국가의 대사(大祀)이다.”라 하여, 국가제례 중 큰 규모의 제사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한편, 『수서(隋書)』 「예의지일(禮儀志一)」에서는 “오사는 성신(星辰), 사망(四望)과 함께 중사(中祀)에 속한다.”<sup>44)</sup>하였고, 다시 북송 때에 이르면 조신은 칠사(七祀)로서 소사(小祀)에 속하게 된다.<sup>45)</sup> 『명회전(明會典)』에 따르면, 명나라 오사는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하였다.<sup>46)</sup> 한편, 『청사고』에서는 “천자는 천지,

37) 崑崙月令承應戲「蒙正祭竈」,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第660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0, 155~158쪽.

38) 「蒙正祭竈」, “今乃臘月二十四日, 竈君升天.”

39) 「太和報最」, “(童子, 紫宮君唱)【前腔】青煙裡長髮鬢, 熏得面如鍋底, 誰當他玉糝金齋, 只好管挑柴運水, 盼的個隆冬廿四.” (薛曉金·丁汝芹主編, 『清宮節令戲』(下), 北京: 新華出版社, 2015, 664쪽에서 재인용).

40) 「司命錫禧」, “(竈君白) 今當臘月廿四日, 正屆奏報人間善惡之期.” (薛曉金·丁汝芹主編, 위의 책, 2015, 666쪽에서 재인용).

41) “差事檔(光緒12年立)”, (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第33冊, 北京: 中華書局, 2011, 17302-17303쪽.)

42) 『禮記』, 曲禮下, “孟冬之月, ……天子……臘先祖五祀.”

43) 『晉書』卷19, 禮志上, “五祀, 國之大祀.”

44) 『隋書』卷6, 禮儀志1, “星辰, 五祀, 四望等爲中祀.”

45) 『正和五禮新儀』卷1, 辨祀.

46) 『明會典』卷80, 禮部39, 祭祀1, “……若先農, 城隍, 旗纛, 馬祖, 五祀, 太厲, 京倉, 先賢, 功臣, 合祀神祇皆遣官致祭.”

종묘, 사직은 직접 제사하고, 대사의 경우 황제가 직접 관장하고, 유사시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 지낸다. 중사(中祀)는 천자가 직접 제사하거나 관리를 파견한다. 군사(群祀)는 모두 관리를 파견하여 지낸다.”<sup>47)</sup>라 하였다. 이처럼 국가전례로서 역대 조신 제사는 처음에는 대사로, 당나라 때는 중사, 송대부터 소사, 청대에는 소사 혹은 군사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예기』에서는 황제가 직접 제사를 하던 것에서 한나라 이후부터는 황제가 직접 제사 지낸 기록이 전무하고, 모두 위임을 받은 관리가 대신 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 황실에는 1659년 5월 21일에 작성된 부뚜막 신에게 올리는 만문(滿文)·한문(漢文) 두 언어로 작성된 제문(祭文)이 전하는데, “순치 16년 4월 초하루, 황제의 위임을 받아 부뚜막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말씀, ‘날마다 부뚜막 신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라. 불을 붙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 여름의 첫 달에는 비단, 가죽, 술을 제물로 바쳐라. 신께서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제물을) 받으소서.’”<sup>48)</sup>라는 구절을 통해 황제의 위임을 받은 관리가 부뚜막 신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청 황실 초기 제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구로, 거울은 샤먼이 신령의 연락을 잘 접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청초 황실의 사조의례에 만주족 샤머니즘의 영향이 미쳤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순치제부터 강희제까지는 사조제사를 (황제가) 직접 지내지 않았다. 옹정 연간에 처음 12월 23일 곤녕궁(坤寧宮)에서 제사를 지내며, 남쪽을 향해 천지(天地) 신위를 배설하고 구배례(九拜禮)를 행했다. 동주(東廚)의 조신에게는 삼구례(三叩禮)를 행했다. 건륭 이후에는 모두 이를 준행하고 감히 폐하지 못하였다.<sup>49)</sup> 이처럼 순치제부터 강희제까지는 국가제사로 사조제사를 황제가 직접 지내지 않다가, 옹정 연간에 조신에 대한 제사가 청 궁정의 사적의례가 되면서, 오히려 황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직접 조신제사에 참여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반면, 민간에서 조신에 대한 제사는 선진시대부터 한나라 때인 2세기까지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였다. 명나라 때가 되면 여성은 사조 제사에서 배제되고, 남성이 담당하게 된다. 범성대의 『제조사』에서도 “남자는 잔을 올리고 여자는 숨는다.”<sup>50)</sup>고 하였고, 『제경경물략·춘장(帝京景物略·春場)』에서는 “문헌에는 부뚜막을 노부(老婦)가 섬겼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남자가 받든다. 여자는 보아서는 안 된다.”<sup>51)</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북경시 일대에는 “남성은 달을 받들지 않고, 여성은 조신을 섬기지 않는다.”<sup>52)</sup>는 말이 전한다.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도 “아녀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sup>53)</sup>고 하였다. 한편 옹정에서 건륭 연간까지 북경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紀勝)』에서는 “남자들은 줄지어 절하며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내

47) 『清史稿』卷57, 吉禮1, “天子祭天地, 宗廟, 社稷. 有故, 遣官告祭. 中祀, 或亲祭, 或遣官. 群祀, 則皆遣官.”

48) 당안 467-485/112의 제문: 한문 텍스트에는 날짜가 없지만, 만주어 텍스트에는 본문에 인용한 날짜가 적혀 있다(이블린S. 로스키, 앞의 책, 2010, 344쪽에서 재인용).

49) 吳振棫, 『養吉齋叢錄』卷8, 史金波主編, 『中華大典·民俗典·地域民俗分典』, 北京: 北京日報出版社, 2015, 274쪽.

50) 『石湖詩集』卷30, 「祭竈詞」, “男兒酌獻女兒避.”

51) 『帝京景物略』卷2, 城東內外·春場, “記稱竈, 老婦之祭, 今男子祭, 禁不令婦女見之.”(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00, 106쪽에서 재인용).

52) 『中華全國風俗志』, 「直隸」, “男不圓月, 女不祭竈.”

53) 『燕京歲時記』, “京師祀竈仍沿舊俗, 禁婦女主祭.”(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00, 393~394쪽에서 재인용).

는 말을 한다. 아녀자들은 내실에서 부뚜막을 청소하고 깨끗한 진흙을 발라 꾸미는데, 이를 ‘도포를 걸친다[掛袍]’고 하며, 등을 밝히고 말없이 절을 한다.”<sup>54)</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 궁정에서 조신 제사를 지낼 때는 황제와 더불어 황후도 참여하여, 남자만 제사에 참여하던 민간의 사조 풍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조공사(國朝宮史)』 卷六 ‘예의·사조의(禮儀·祀竈儀)’에 이르길, “건륭 시대, 매년 12월 23일 저녁에 곤녕궁에서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정실(正室)의 온돌 위에 고판(鼓板)을 미리 준비한다. 황후가 먼저 도착하면, 황제께서 이어 도착하여 온돌 위에 앉는다. 황제께서 스스로 고판을 두드리며 「방현(訪賢)」<sup>55)</sup>한 곡을 부르면, 황후께서 역시 합하여 노래했다. 집사관이 우뚝 서서 돌아가며 듣고, 노래가 끝나면 신을 배웅하고, 황제께서 일어나 환궁하신다. 육십년 동안 한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sup>56)</sup>라고 하였다. ‘상(上, 황제)’은 건륭제를 가리키며, ‘자격고판(自擊鼓板)’은 피리 반주 없이 타악기 반주만 진행하고, ‘후역합지(后亦合之)’는 황제의 노래에 맞춰 함께 방강(幫腔)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부창부수의 모습을 보여준다.<sup>57)</sup>

이처럼 민간과 구별되는 부부합제의 특징은 월령승응희 작품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상술한 『절절호음』 수록 여덟 작품 속에는 모두 사조일에 부부가 함께 조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날이 이미 어두우니 아내를 불러내어 함께 제사를 바쳐야겠습니다.”<sup>58)</sup>

유부인 : 당신은 단지 가난한 시 한 수 읊을 뿐인데, 저 조신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만 피곤하게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꿇어앉아 있어야 할 뿐이네요.……

(각자 일어난다. 이어서 무대 위에서 차 그릇과 향초를 치운다)<sup>59)</sup>

여몽정 : 소신은 여몽정입니다. 황제의 큰 은혜를 입어 특별히 만든 관직을 제수 받았고, 아내 유씨도 작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온 집안의 영화며 가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납월 23일이니, 소신은 부인과 함께 가서 조신께 제사지내고자 합니다.<sup>60)</sup>

“오늘은 사조일이니, 그를 청해서 함께 향을 피우고 술을 바쳐 조신에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혹시 감동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약간 좋은 일이 생길지도요.”<sup>61)</sup>

54) 『帝京歲時紀勝』, “男子羅拜, 說以過惡揚善之詞. 婦女於內室, 掃除爐竈, 以淨泥塗飾, 謂曰掛袍, 燃燈默拜.”(이장숙, 「부뚜막 신에게 올리는 제사」, 『문헌과 해석』 73, 태학사, 2015, 149쪽에서 재인용).

55) 「방현(訪賢)」은 원대 나관중(羅貫中)이 지은 잡극 「풍운회(風雲會)」 중 「방현상설(訪賢賞雪)」이라고도 부른다. 송 태조가 눈 오는 밤 조보(趙普)의 집을 찾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현명한 신하를 찾는 뜻을 밝힌 내용이다. 사조절 시기와 작품의 내용이 부합하여 건륭제가 사조일에 노래하여 ‘육화(育化)’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후세에도 곤강과 익양강 두 성강으로 모두 공연될 정도로, 청 통치자들이 상서로운 작품으로 여겼다. 가경 이후, 황제와 황후가 함께 「방현」을 노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남부 및 그 후의 승평서 명절 공연 극목으로써 매해마다 끊이지 않고 공연되었다.

56) “乾隆一朝, 每年於十二月二十三日之夕, 祀竈於坤寧宮, 預在正室之炕上設鼓板. 后先至, 上繼至, 坐炕上. 自上擊鼓板唱「訪賢」一曲, 后亦合之, 執事官鵠立環聽, 唱畢送神, 上起還宮. 六十年中, 無歲不然.”(內務府輯, 『欽定宮中現行則例』 卷2, 臺灣: 文海出版社, 1994, 306~307쪽에서 재인용).

57) 楊連啟, 『清末宮廷承應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12, 71~72쪽.

58) 「藏神顯聖」, “天色將晚, 不免喚娘子出來, 一同致祭可也.”

59) 「蒙正祭竈」, (劉夫人白) “你也不過吟一首窮詩, 那竈君也未必歡喜, 累我陪你多跪一回而已. ……(各起科, 場上隨撒茶碗炷香科).”

60) 「喜滿門庭」, (呂蒙正白) “下官呂蒙正, 受聖上隆恩, 得專制誥. 夫人劉氏, 官極誥封. 一家榮耀, 門戶生輝. 今朝臘月二十三日, 下官與夫人前去祭竈.”

“오늘은 또 제조하는 날이니, 작년에 베풀지 않을 때 제사지내지 않았던 때와 달리 부뚜막 앞에 가서 조군께 제사지내야겠습니다. 부인이 나오길 기다려 함께 가야겠습니다.”<sup>62)</sup>

이처럼 남성 혼자 조신에게 제사 지내던 민간의 풍습이 사조절희에서는 황제와 황후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청 황실 사조의례를 반영하여 왕씨, 유부인, 범석호의 처 등 모두 아내가 등장하고, 부부가 함께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황후의 제사 참여는 역대 공적 의례로서의 사조제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사조의례가 옹정 이래로 청 황실의 사적의례이자 가내의례로 탈바꿈하면서 가능해진 변화이다.

통치권과 직결된 국가제단의 제례와는 달리, 청 궁정의 사적의례는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궁정, 대규모로 확대된 가족에 관한 것이다. 궁정의 사적의례는 내조(內朝)라는 공간 안에서 거행되며 샤머니즘, 도교, 불교, 티베트불교, 민간 종교의 전통을 절충한 혼합물의 성격을 띤다.<sup>63)</sup> 황제는 물론이고 황실의 여성들도 참여한 청 궁정의 사적인 가내의례는 청 제국이 추구한 대업의 다문화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교, 민간 신앙,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샤머니즘, 도교 등의 종교 전문가들이 황실을 위해서 올린 의례들은 청나라 황제들이 후원한 절충적 신앙체계의 절충적 혼합물이었다.<sup>64)</sup> 이처럼 청 궁정의 가내의례로 변모한 사조의례는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및 문화를 융합하고자 한 청 황실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교의 신이자 한족의 오랜 민간신앙인 조신 제사를 만주족 샤먼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곤녕궁에서 함께 지낸 것은 청 황실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적 종교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곤녕궁 제사는 탕서와 함께 청 황실의 가장 중요한 샤머니즘 제사로서, 하늘신과 조상신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관음보살, 관제 등 외부에서 도입된 신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 황실이 한족의 불교, 도교, 민간 신앙 등을 수용하면서 만주족의 샤머니즘이 전례화, 제사화 되었지만, 만주족 샤머니즘의 고유한 의식의 일부를 존속하면서 만주족만의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있다.<sup>65)</sup>

### 3. 신위(神位) : 청 황실 조신 신앙의 인간화, 도교체계화 반영

중국에서 조신의 원형은 화신(火神) 및 태양신(太陽神) 등 자연 숭배에서 기원하였다. 염제(炎帝), 황제(黃帝), 축융(祝融) 등 중국 대표 시조신이 죽어서 조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불, 태양신 숭배가 중국인의 가정생활에 흡수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신화적 존재로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으로서 중국 시조신의 위용을 입고 있다가 이후 불이 인간 생활과 밀착되어 마침내는 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하며 인간미를 띠는 인격체로 변모한다.<sup>66)</sup> 처음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미녀의 모습”<sup>67)</sup>처럼 여성의 형상으로 등장하다가, 한나라

61) 『儒士安貧』, “今日是祀竈之日, 不免請出他來, 一同拈香酌酒, 禱告竈神. 或者有感, 賜我夫妻二人, 畧畧有些好處.”

62) 『祿位齊豐』, “今日又是祭竈之日, 不比去年布衣不祀, 要到竈前去祀竈了. 待夫人出來, 一同前去可也.”

63) 이블린S. 로스키, 앞의 책, 2010, 339쪽.

64) 이블린S. 로스키, 앞의 책, 2010, 258~261쪽.

65) 이훈, 『만주족 이야기: 만주의 눈으로 청 제국사를 새로 읽다』, 너머북스, 2018, 229~230쪽.

66) 조신에게 인간의 성명을 부여한 것은 대략 위진 이후로 보이며, 수나라 杜臺卿의 『玉燭寶典』에서는 『竈書』를 인용하여 ‘조신의 성은 蘇(소), 이름은 길리(吉利)이고, 부인의 이름은 박형(博頰)이라 하였고, 『荊楚歲時記』에서는 ‘조신의 성은 소(蘇),

이후 부권 사회로 편입되면서 조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고, 점차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 가정까지 꾸리게 된다. 이후 수·당대를 거치며 조신 신앙은 도교에 편입되어 조신과 관련된 도교 경전이 본격적으로 출현한다.<sup>68)</sup> 이처럼 조신은 원시사회에서 출발하여 역사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세속의 관념을 흡수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관장하던 신이 점차 '사명(司命)'신이자 한 집안의 가신(家神)으로, 일가족의 수명과 화복을 관장하게 되었다.<sup>69)</sup>

그렇다면 청 황실에서 숭상했던 조신의 구체적 형상과 성격은 무엇일까? 역시 사조절희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현전하는 사조절희 속 조신에 대한 명칭은 모두 '조군(寵君)'이며, 몇 작품에서는 부인인 '조군부인(寵君夫人)'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조신은 사명조군(司命寵君), 정복조군(定福寵君), 동주사명(東廚司命), 정복진군(定福眞君), 조군아(寵君翁), 조군공(寵君公), 조군보살(寵君菩薩), 조신아(寵神翁), 조신(寵神), 조군(寵君)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sup>70)</sup> 조군이라는 용어는 『전국책(戰國策)』 제 20권 조책(趙策) 3 '위령공근옹저미자하(衛靈公近癡疽彌子瑕)조의 "꿈에 조군을 만나다(夢見寵君)"라는 구절에 처음 등장한다.<sup>71)</sup> 일반적으로 조신이 부엌 주재신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 용어라면, 조군은 도교신격으로 표상된 용어이며, 사명조군은 그 조신의 신적 기능을 사명신 성격으로 결합하여 부각시킨 용어이다.<sup>72)</sup> 청 황실에서 조신은 이미 도교신격의 표상으로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며, 황실 내에서 공연된 작품이기에 민간에서 흔히 쓰는 명칭 중 조왕(寵王)이나 조군할멈[寵君奶媪] 같은 명칭은 회피하고 있다.

한편, 『절절호음』 수록 사조절희에는 등장 배우들의 무대의상이나 소도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천대(穿戴)'가 전하고 있어, 무대 위에서 조군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 황실에서 숭상하는 조군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효신흡', '동주석복', '조군전유', '장신현성', '녹위제품'에서 조군이 등장인물로 직접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 무대의상의 묘사는 모두 다음과 같다.

“정(淨)은 조군이다. 조군발(寵君髮)을 쓰고, 망(蟒)을 입고, 허리띠를 묶었다.”<sup>73)</sup>

“축(丑)은 조군부인이다. 봉관(鳳冠)을 쓰고, 망(蟒)을 입고, 허리띠를 묶었다.”<sup>74)</sup>

이름은 길리(吉利), 부인의 성은 왕(王), 이름은 단협(搏頰)이라 했다. 당나라 李賢은 『雜五行書』를 인용한 주석에서 '조신의 이름은 선(禪), 자는 자곽(子郭)이고 황의(黃衣)에 피발(被髮)한 여신(女神)으로 부엌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당나라 段成式的 필기소설집인 『西陽雜俎』 속 「諾皋記」에서는 '조신의 성은 장(張), 이름은 단(單) 또는 외(隗), 자는 자곽(子郭)으로 미녀의 용모를 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청대 『敬寵全書』에서는 "조군의 성은 장(張), 이름은 단(單), 자는 자곽(子郭)이다"라 하면서도, 남신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67) 『莊子』, 「達生」, “寵神, 着赤衣, 狀如美女.”(楊福泉, 앞의 책, 1995, 83쪽에서 재인용).

68) 김우석, 「寵神 신앙과 寵君寶卷」, 『중국문화』 35, 한국중국어문화회, 2001, 197~202쪽.

69) 廖海波, 『世俗與神聖的對話－民間寵神信仰與傳說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1쪽.

70) 김광언, 「중, 한, 일, 세 나라의 주거 민속 연구(Ⅳ)－조신」,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338쪽.

71) 樂保群, 『中國神怪大辭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658쪽.

72) 김일권, 「19세기 도교 언해서 『조군영적지』 구성과 조신의 도교신적 고찰」, 『도교문화연구』 53, 한국도교문화학회, 2020, 267~318쪽.

73) 「仁孝神欽」, 「東廚錫福」, 「寵君傳諭」, 「藏神顯聖」, 「祿位齊豐」, 「司命錫禧」, “淨寵君, 戴寵君髮, 穿蟒, 束帶.”

74) 「仁孝神欽」, 「司命錫禧」, “丑寵君夫人, 戴鳳冠, 穿蟒, 束帶.”

망(蟒)은 망포(蟒袍)로서, 명나라 관원들이 망포를 입던 것을 계승한 것으로, 왕공대신과 문무백관의 가장 중요한 관복이다. 평상시 입는 조복(朝服)과 구별하여, 대형 국가전례 및 연회 등 경축 활동에서 입었다. 관복인 망포와 허리띠를 묶은 것으로 보아 조군은 전형적인 관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조군부인 역시 고대 후비(后妃)가 쓰던 머리장식이자, 후에 조정으로부터 봉작을 받아 내명부(內命婦)에 등록된 명부(命婦)들이 쓰던 봉관을 쓰고 있어 관원 부인의 복장을 갖추고 등장한다. 한편, 청 궁정회에서는 이미 ‘조군발(竈君髮)’이라고 부르는 조군에게만 전문적으로 쓰이는 머리장식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청 궁정회에서 조군의 무대 형상이 이미 정형화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녹위제풍」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 조군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

“집사, 매향: 신묘하도다! 하늘의 음악 울려 퍼지고, 상서로운 구름 천천히 가니, 한 무리 시종이 붉은 얼굴에 붉은 옷 입은 조군을 옹위하여 하늘 문에 올라 가셨구나.”<sup>75)</sup>

이 대사는 조군이 하늘에 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건륭 연간 조군의 이미지는 『장자·달생』의 “붉은색 옷을 입은” 조신의 형상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신 승배에서 비롯된 불의 이미지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 후기로 가며 조군을 상징하는 색깔의 이미지가 변화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연극애호가로 유명한 동치제는 직접 조군 배역을 맡아 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다. 「타조(打竈)」<sup>76)</sup>라는 작품을 공연하며, 공왕의 아들 재징(載徵)이 작은 삼촌(小叔)을, 후비 한 사람이 이삼수(李三嫂)를, 동치제는 조군을 연기하였는데, 검은색 도포를 입고, 손에는 목판을 쥐고, 이삼수를 연기하는 후비가 때리고 욕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sup>77)</sup> 여기서 조군은 검은색 도포를 입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중국 민간에서도 조신의 형상을 자주 “검은 얼굴에 검은 수염, 솔바닥 같은 얼굴黑面黑鬚, 面如鍋底”이라는 묘사가 흔하다. 이는 부두막 불을 관장하기에, 하루 종일 그을음과 연기를 뒤집어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sup>78)</sup> 청 중엽 도교 및 민간신앙에 대해 기술한 『신수신기(新搜神記)』에서도 “얼굴이 검은자를 조신에 비유한다.”<sup>79)</sup>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청 중엽 민간에서는 이미 조신의 얼굴은 검은색이라는 통념이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이런 통념이 반영되어 청 후기 궁정회에서 조신의 형상도 검은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75) 「祿位齊豐」, “(院子, 梅香同白) 妙嘍! 天樂鏗鏘, 祥雲荏苒, 一行侍從, 擁着一位赤臉朱衣的竈君, 升上天門去了。”

76) 「타조분가(打竈分家)」는 「자형수(紫荊樹)」, 「타조왕(打竈王)」이라고도 부른다. 전씨(田氏) 형제 세 사람이 함께 살았는데, 그 집에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자형(紫荊)나무가 있었다. 셋째의 아내인 이삼춘(李三春)이 그 남편에게 분가를 하자고 재촉하고, 두 형이 허락하지 않자 이씨가 밤낮으로 소란을 피우며 조신에게 분풀이를 하여 그 신앙을 깨버렸다. 형과 형수가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허락하자 자형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다. 형제 세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함께 살게 되자 나무가 다시 부활하고, 이삼춘은 부끄러워하며 죽었다는 이야기다. 소단(小旦), 소생(小生), 소축(小丑)이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삼소희(三小戲)’공연이다.

77) 林濤編, 「清朝野史大觀」, 『正說清朝三百年』,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5, 53-54쪽.

78) 楊波·楊學旺, 『郵票上的神話與傳說』, 北京: 北京時代華門書局, 2016, 138쪽.

79) 李調元撰, 『新搜神記』, 「神考」, 竈王, “今人謂人面黑者比之題王.”(楊福泉, 『華夏諸神- 竈神卷』, 臺北: 雲龍出版社, 2000, 86쪽에서 재인용).

청 황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승되는 조신의 형상도 점차 각진 얼굴에 큰 귀, 세 가닥 긴 수염을 기르고, 고대 한족의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쓰거나 더러는 도포(道袍)를 입고 도관(道冠)을 쓰고 있어 모두 관원이거나 도사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화신 숭배 사상 속 불이나 빛 형태의 초기 조신인 염제, 황제, 축융의 모습이나 ‘매미’, ‘개구리’ 등 고대 영물신앙 및 동물토템 숭배의 흔적과도 거리가 있다. 이는 조신에 대한 이미지가 기존의 태양신과 화신처럼 영험하고 신비한 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관원과 도사 같은 인간과 한층 친근하고 친밀한 이미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sup>80)</sup>

인간과 친밀한 이미지로 변모한 조신은 점차 성과 이름을 가지고, 가정과 부인까지 거느리면서 더욱 세속화, 인간화되었다. 오늘날 중국인의 조신 신앙의 틀을 형성한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이 지은 『酉陽雜俎(酉陽雜俎)』 「낙고기상(諾皋記上)」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신의 성씨, 부인, 자녀, 수하들을 묘사하고 있다.

“조신의 이름은 외(隗)이고, 미녀의 모습이다. 또 다른 성은 장(張)이고 이름은 단(單)이다. 부인은 기경(忌卿)이고, 여섯 딸을 두었는데 이름은 모두 찰흙(察洽)이다.……그에게 속한 신으로 천제교손(天帝嬌孫), 천제대부(天帝大夫), 천제도위(天帝都尉), 천제장형(天帝長兄), 형상동자(硯上童子), 돌상자궁군(突上紫宮君), 태화군(太和君), 옥지부인(玉池夫人) 등이 있다.”<sup>81)</sup>

「인효신흥», 「사명석희」에서는 조군과 함께 조군부인이 등장하여 청 황실에서 조신 부부를 함께 숭상하였음을 보여준다. 「인효신흥」의 조군부인의 등장 시 읊는 대사에서는 “오사(五祀)는 예로부터 『예기』에 실려 있으니 노부(老婦)를 대대로 모시며 본받았네. 만약 토지부인을 모셔서 온다면 한 가지로 위엄 있는 신이며 한 가지로 영험하다네. 저는 조군부인입니다. 우리집 조군과 함께 신이 되었습니다.”<sup>82)</sup>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조신의 성이 장씨가 된 데에는 오두미도(五斗米道)의 창시자이자 후에 도교의 정통이 된 장릉(張陵)이 장천사(張天師)로 숭배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나라 때부터 옥황상제의 성도 장씨로 정착이 되었고, 조신도 옥황상제에게 장씨 성을 부여 받고 옥황상제 수하의 여러 신격들을 자신의 수하에 거느리게 된다.<sup>83)</sup>

이런 도교 영향 하의 조신의 형상은 사조절희에서도 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사명석희」에서 조군이 등장하며 읊는 대사인 “저는 조군사명복주(竈君司命福主)인 장자곽(張子郭)입니다. 예는 오사(五祀)처럼 성대하고, 밝기는 삼광(三光)과 대등하니, 악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리지요.”<sup>84)</sup>를 통해 자신의 이름

80) 楊福泉, 앞의 책, 1995, 87~88쪽.

81) 『酉陽雜俎』 「諾皋記上」, “竈神名隗, 又姓張, 名單, 字子郭, 夫人字忌卿, 有六女皆名察洽.……其屬神有天帝嬌孫, 天帝大夫, 天帝都尉, 天帝長兄, 硯上童子, 突上紫宮君, 太和君, 池夫人等.”(段成式, 『酉陽雜俎』, 『叢書集成初編』, 王雲五編, 北京: 中華書局, 1985, 276~278쪽.)

82) 「仁孝神欽」, “(竈君夫人白) ‘五祀從來載禮經, 祭傳老婦式芳型. 試邀土地夫人到, 一樣威神一樣靈.’ 吾乃竈君夫人是也. 與吾家竈君, 同成神果.”

83) 김우석, 앞의 논문, 2001, 201쪽.

84) 「司命錫禧」, “吾乃竈君司命福主張子郭是也. 禮隆五祀, 明並三光, 惡殺好生.”(薛曉金·丁汝芹主編, 앞의 책, 2015, 666쪽 재인용).

과 역할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왕족인 아이신 기오로·푸지에(愛新覺羅·溥杰)는 만년에 청 궁정 풍속에 대해 회고하며, “조신은 성이 장(張)씨이네. 한 그릇 찬 물과 세 향을 피우네. 하늘에 올라 좋은 일 말하고, 궁에 돌아와 길상을 내려주시네.”<sup>85)</sup>라는 청 궁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기록하였다. 청대 간행된 『경조전서』에서도 조신의 성이 장(張)이고, 이름은 단(單), 자는 자곽(子郭)이라고 하여서, 청 궁정에서 모시는 조신의 원형은 도교 시스템 내의 조신인 장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조절희 안에는 조신의 수하에 있는 속신들에 대한 묘사도 상세하다. 속신들은 그 이름으로 보아 모두 도교신의 위계에 속하는데, 이로써 ‘옥황상제-조신-속신’의 상하체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인효신흠」에서는 직접 등장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인, 오늘은 지상의 일 보고하는 날이라 내가 감찰 제신들과 함께 만나 일을 의논하느라 술 몇 잔을 마시게 되었소.”라는 조군의 대사를 통해 조군 휘하의 감찰 제신(監察諸神)의 존재를 드러내고, 「조군전유」, 「장신현성」에서는 잡(雜) 향당이 ‘금·은장신(金·銀藏神)’, ‘선동(仙童)’ 등 조신의 명령을 받들고 수행하는 수하들로 분장하여 등장한다. 나아가 「태화보최」, 「사명석희」에서는 태화군, 옥지부인, 형상동자, 돌상자궁군, 천제대부, 천제장형, 천제교손, 천제도위가 무대에 등장하여, 한 해 동안 각 집안의 선악을 기록한 책인 선적(善籍)을 조신에게 검사받고 함께 하늘에 올라 옥황상제 보고하는데, 이는 앞서 『유양잡조』에서 이미 언급된 조신의 속신들로서, ‘속신-조신-옥황상제’로 이어지는 도교 내 보고체계 및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사조절희 속 조군의 관원의 형상 및 뚜렷한 상하위계 질서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청 황실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및 상명하복의 정치적 색채를 간접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 4. 제물(祭物) : 황양(黃羊), 당공(糖貢) 등 만주족 특성 반영

민간과 궁정의 사조의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규모나 절차, 제물의 종류에는 차이를 보인다. 또 역사를 거듭하며 각 시대를 반영하여 제사방식이 바뀌기도 하였다. 가령 대표적 제물에는 황양(黃羊), 조당(竈糖)이 있고, ‘하늘에 승천하는 조신을 배웅하는 의식(送竈)’, ‘다시 맞아들이는 의식(接竈)’이나 ‘가난 몰아내기(送窮)’, ‘조왕굿놀이(跳竈王)’<sup>86)</sup>와 같은 조신 관련 풍속이 전한다.<sup>87)</sup> 『절절호음』 수록 사조절희에서는 여몽정, 음자방, 범석호 세 선비 가정에서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무대에서 공연하며, 민간에서 거행되는 사조 제사와 풍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대 한족의 사조의례 및 풍속을 만주족 정권의 청 황실에서 전시하며, 만주족 통치자들이 한족의 민간 풍속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령, 「희만문정」에서는 여몽정이 재상이 된 후 성대하게 조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유부인이 여몽정에게 “……조왕신께 제사지내는 날, 깨진 가마 안에는 향과 초가 하나도 없었지요. 오늘 아침 조왕신 제사에는 술, 고기, 향기로운 향, 술과 쟁반 가득하네요. 조왕신께 제사 지내는 것은 같지만, 우리 두 사람의

85) “竈王爺，本姓張。一碗涼水三炷香。上天言好事，回宮降吉祥。”

86) 顧祿，『清嘉錄·跳竈王』，“月朔，乞兒三五人爲一隊，扮竈公竈婆，各執竹枝，噪於門庭以乞錢，至二十四日止，謂之跳竈王。”

87) 廖海波， 앞의 논문， 2003， 36~47쪽.

사정은 천지차이네요.”<sup>88)</sup>라는 대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술, 고기를 바치고, 향을 피워 조신에게 지내는 민간의 풍속을 노래하고 있다.

또, 「장신현성」에서는 범석호 가문의 조신제사 준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극 초반에 등장하는 지시문에 “무대 위에 조대(竈臺) 소도구를 설치하는데, 위에 조신에게 제사하는 복물(福物)과 향축이 놓여있다.”<sup>89)</sup>로 소개하고, 「녹위제풍」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시문에 “무대에 제상을 설치하고 제조의 제물, 돼지 머리, 생선 등을 놓는다.…… 범석호가 향을 피우고 절한다.”<sup>90)</sup>로 묘사하여 조신제사에는 돼지머리, 생선 등을 복물로 사용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주석복」에서는 음자방과 부인 왕씨가 함께 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음자방이 노래한 “【우일제】 중사(中祀)에 바치려 소뢰(少牢)를 잡았으니, 젊은이 늙은이에게 복을 내리소서.……나는 양을 잡아 피 부족한 게 부끄럽지만, 조금이나마 신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sup>91)</sup>라는 가사를 통해 마땅히 조신제사는 양과 돼지고기를 함께 올려야 하는 소뢰로 올려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의 백성들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탕과 과일 등으로만 조신 제사를 지냈다. 제품에 돼지고기, 양고기를 사용하는 소뢰 제사는 황실의 오사 제사를 반영한 것<sup>92)</sup>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경세시기』에서는 “23일 조신에게 제사할 때, 고대에는 황양을 사용했다. 근자에 듣기로는 궁정에서 여전히 황양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황양을 사용하지 않는다. 민간에서 제사할 때는 오직 남당(南糖), 관동당(關東糖), 꿀떡 및 맑은 물, 콩 등을 사용할 뿐이다.”<sup>93)</sup>라 언급하고 있다.

반면, 청나라 오진역(吳振械)의 『양길재총록(養吉齋叢錄)』에서는 “황양으로 사조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 진고가 있다. 지금 12월 22일, 건청문(乾淸門)의 시위가 남원(南苑)에 가서 황양을 사냥해 와서, 23일 상경하여, 궁궐에서 사조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sup>94)</sup>라 하였다. 황양은 원래 누런 개인데, 고대에 개를 제사 제물로 사용할 때 ‘황양(黃羊)’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청 황실에서 사용한 황양은 청 황실의 남원이나 장가구에서 직접 사냥하여 진상하는 배가 누런 양으로, 『인서당필기(仁恕堂筆記)』에서는 “황양은 변방에서 생산된다. 털이 아주 가늘고, 그 맛이 집에서 기르는 양보다 담백하다.”라 하고, 『비사총담(毘榭叢談)』에서도 “사조에 사용되는 황양은 『이아(爾雅)』에서 말한 ‘배가 누런 양’이다.”라고 하였다.<sup>95)</sup> 청 황실에서는 매년 납월 22일,

88) 「喜滿門庭」, “……于祭竈之日, 在破窑之中, 尙無香燭. 今朝祭竈, 却又樽俎馨香, 杯盤羅列. 祀竈固是一樣, 而吾二人之光景, 竟天淵之相隔矣.”

89) 「藏神顯聖」, “場上預設竈臺切末, 上擺祭竈福物, 香燭科.”

90) 「祿位齊豐」, “場上預設供桌, 上擺祭竈福物, 猪頭, 魚科, ……范石湖作拈香, 同作禮拜科.”

91) 「東廚錫福」, “(陰子方唱)【又一體】修中祀刲少牢. 福祐人家老少. ……(合) 要幫扶鬚頭鹿標. 我刲羊惟羞血少. 暫報神勞.”

92) 『明會典』卷54에 따르면, “五祀의 제사는 孟孟과 季夏에 나누어 각각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제사용 制帛 하나로 제사한다. 연말에는 합제하는데, 양 다섯 마리, 돼지 다섯 마리, 制帛 다섯으로 한다.”

93) 「燕京歲時記」, “二十三祭竈, 古用黃羊, 近聞內廷尙用之, 民間不見用也. 民間祭祀, 惟用南糖, 關東糖, 糖餅及清水豆而已.” (국립민속박물관(편), 앞의 책, 2006, 393쪽에서 재인용).

94) “黃羊祀竈, 古有其說. 今十二月二十二日, 乾淸門侍衛至南苑獵取黃羊, 以二十三日回京, 供大內祭竈之用. ……大內祀竈用錫, 俗謂竈糖. 每歲十二月, 奉天內務府備貢運京, 謂之糖貢.”(史金波主編, 앞의 책, 2015, 274쪽.)

95) “『仁恕堂筆記』: ‘黃羊, 邊產也, 毛不堪織, 味比家羊稍淡.’ 『毘榭叢談』: ‘祀竈之黃羊, 當即爾雅之播播腹黃.’”(章乃煒, 앞의 책, 1988, 289쪽.)

내무부는 황궁 시위대를 남원(南苑)으로 보내어 황양을 사냥하게 하고, 다음날 잡아서 곤녕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매년 납월 조신에게 제사할 때는 황양 두 마리가 필요하다. 공문서를 올려 내무부가 처리하여 사용한다. 도광 11년에 황명을 받들어 이후로는 매년 12월 23일에 조신에게 제사할 때, 장가구(張家口)에서 진상한 황양을 사용하고, 사람을 보내 남원에서 사냥하지 않는다.”<sup>96)</sup>라 하였다.

한편, 청 황실은 황양뿐만 아니라 맥아당으로 각종 조신에게 바칠 사탕을 만들어 바쳤다.<sup>97)</sup> 『양길재총록』에 이르길, “궁정에서 사조에 ‘탕(餉)’을 사용하는데, 민간에서 ‘조당(祀竈)’이라 부른다. 매년 12월에 봉천(奉天, 오늘날의 심양) 내무부에서 조공을 준비하여 경성에 운반하는데, 이를 ‘당공(糖貢)’이라 부른다.”<sup>98)</sup>라 하였다. 이를 통해 청 황실에서 사용하는 조신에게 바치는 사탕은 장방형, 원형 등 형태가 다양한 ‘탕(餉)’이라고 부르며, ‘당공(糖貢)’이라는 명목으로 북경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산해관(山海關) 밖의 성경(盛京, 오늘날의 심양)에서 특별 제작하여 내무부가 북경으로 운송해 온 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 황실은 조신 제사에 사용한 제품(祭品)에 있어서도 역대 조신 제사 및 민간의 제품을 수용하면서도, 남원이나 장가구 등에서 사냥한 황양을 사용하거나 만주족 옛 선조의 역사가 남아있는 성경에서 제작하여 바친 조당을 활용하여 청 황실의 만주족 민족 특성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잘 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청 궁정에서 건륭 연간 이래로 매년 음력 23일(또는 24일)에 공연된 사조절회는 청 황실에서 거행되는 사조제사와 더불어 청 황실만의 독특한 사조 문화를 형성하였다. 상술한 청 궁정 사조절회에 반영된 청 황실의 사조문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청 황실의 사조 문화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 황실의 사조문화는 민간과 관방의 사조문화를 융합하였다. 중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조신 숭배는 청나라 이전까지는 민간과 관방이라는 두 가지 다른 성격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제사 형식에 있어서 명나라까지는 오사의 일종으로 국가제사로 지내던 것이 강희제 이후 폐지되고, 옹정제부터는 매년 납월 23일 궁궐 내 곤녕궁에서 황실의 사적의례로 바뀌었다. 국가 제단의 제례가 통치권과 관계되며, 종교에 대한 청 황실의 후원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적의례는 하나의 가구로서의 궁정, 대규모로 확대된 가족에 관한 것이다. 청 황실의 사적의례로서 거듭난 사조의례는 청 황실이 민간에서 매 가정이 한해의 평안과 복을 위해 조신에게 제사지내는 풍습을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민간에서 전승되던 사조절 관련 인물, 고사, 풍습 등을 총망라하여 사조절회 안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초기에는 사조일을 모

96) “每年臘月祀竈神，需用黃羊二隻，咨呈內務府辦理應用。道光十一年奉旨：嗣後每年二月二十三日致祭竈神，著用張家口進到黃羊，毋庸派員赴南苑打捕。”(章乃煒, 앞의 책, 1988, 290쪽.)

97) 向斯, 『紫禁城帝王生活』,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2015, 128-129쪽.

98) “黃羊祀竈，古有其說。今十二月二十二日，乾清門侍衛至南苑獵取黃羊，以二十三日回京，供大內祭竈之用。……大內祀竈用餉，俗謂竈糖。每歲十二月，奉天內務府備貢運京，謂之糖貢。”(史金波主編, 앞의 책, 2015, 274쪽.)

두 청 관방의 사조일인 23일에만 공연을 하였다면, 후기 승평서 작품에는 민간 남방의 사조일을 반영하여 24 일에도 사조절회를 공연하며, 다양한 지역의 백성들의 문화를 수용하며 여민동락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낸다. 한편, 그 내용이나 곡사에 있어서도 초기 작품들은 어용사인에 의해 창작되거나 개작되어 그 가사가 전 아하지만, 후기 승평서 작품들은 민간에서 유행하던 명 전기(傳奇)의 내용 및 곡조인 익양강(弋陽)을 수용하는 등 민간과 관방의 사조문화의 융합을 꾀하였다.

둘째, 청 황실의 사조문화는 한족과 만주족의 신앙 및 풍속을 융합하였다. 청 황실의 궁중의례는 샤머니즘, 도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민간 종교의 전통을 절충한 혼합물로서 내조라는 공간 안에서 거행되며, 청나라 황제와 가족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를 구분하고, 조상들을 기념하며, 백성들과 상징적으로 연결해 주었다. 청 황실의 사조의례도 한족 명 황실의 예제를 계승하면서도 만주족의 신앙 및 풍속을 적절히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수용하는 청 황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월령승응회가 궁정 안에서 공연된 것은 만주족 통치자들의 한족 명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보여주며, 새롭게 제정된 월령승응회 속에는 순복한 한족에 대한 찬양과 기복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만주족 통치자들의 권력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월령승응회의 공연을 통해 한족의 명절 풍속 및 민간신앙도 청 궁정의 일상생활 속으로 수용되었다. 사조일에 청 궁정 내 만주족 샤머니즘 제사의 중심지인 곤녕궁에서 황제가 한 가계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화복을 관장하는 신인 조신에게 지낸 제사는 한족의 조신신앙을 수용하면서도 만주족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청 황실의 의지가 투영된 제사방식이다. 실제로 사조일에 청 황제는 부처, 신, 조신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하늘신과 조상신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관음보살, 관제 등 외부에서 도입된 신도 함께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청 황실은 한족의 불교, 도교, 민간 신앙 등을 수용하면서도 만주족 샤머니즘의 고유한 의식의 일부를 존속하면서 만주족만의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조신에게 바치는 황양과 사탕은 역대 한족의 풍습과 고사를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황양을 만주족의 특성을 살려 처음에는 남원이나 황실의 목장이 있는 장가구에서 사냥한 것을 사용한 것이나 조신에게 바치는 사탕도 '당공'이라는 명목으로 청 황실의 뿌리가 있는 성경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역대 조신 제사 및 민간의 조신 제품을 수용하면서도 청 황실의 민족적 특성을 적절하게 아우르고 있다.

셋째, 연극을 궁정 예약으로 수용 확대한 청나라 예약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예약 문화의 관점에서 청 궁정회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연 전 거행되는 의례 절차를 통하여 예를 실현하고, 그 후 진행되는 연극 공연을 통하여 악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연극은 단순히 황제의 여가용 오락이 아니라, 청 왕조의 정통성 및 황제의 왕권을 강화하며 내정과 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건륭 연간부터 세시 의례에 따라 공연하도록 제도화된 월령승응회는 신을 위한 의례가 있고, 의례와 동반하여 공연된 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연극이다. 그 공연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연극이자 의례이기도 한 '의례회'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사조절회에서도 청 황실의 다양한 사조의례가 직간접적으로 무대에서 재현되며 연극이자 의례이기도 한 청 황실의 확장된 예약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 궁정 사조일에 공연된 사조절회 작품을 통해 민간과 관방의 사조 문화의 융합, 율포 등 한족의 다양한 신앙 종교의 수용 및 만주족 샤머니즘 신앙의 융합, 연극을 궁정 예약으로 수용 확대한 청 궁정의

사조의례의 포용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 통치자의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궁정, 대규모로 확대된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및 문화에 대한 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이상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國家圖書館古籍善本室藏, 『節節好音』 乾隆五色鈔本, 四十三冊.
- 房玄齡等撰,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98.
- 張廷玉等撰,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82.
- 趙爾巽等撰,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1976.
- 鄂爾泰·張廷玉等編纂, 左步青校點, 『國朝宮史』,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4.
- 慶桂編·左步青點校, 『國朝宮史續編』(上), 北京: 北京出版社, 2018.
- 中國國家圖書館編撰, 『中國國家圖書館藏清宮昇平署檔案集成』, 北京: 中華書局, 2011.
-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第660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0.
- 국립민속박물관(편), 『중국대세시기』(2), 국립민속박물관, 2006.
- 김광언, 「중, 한, 일, 세 나라의 주거 민속 연구(IV) - 조신」,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김우석, 「寵神 신앙과 寵君寶卷」, 『중국문학』 35,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 김일권, 「19세기 도교 언해서 『조군영적지』 구성과 조신의 도교신격 고찰」, 『도교문화연구』 53, 한국도교문화학회, 2020.
- 사진실,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왕실의 연회축제』, 태학사, 2017.
- 신지영, 「청대 月令承應戲의 세시의례성」, 『중국어문학지』 45, 중국어문학회, 2013.
- 이블린S. 로스키(저), 구범진(역), 『최후의 황제들 -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글방, 2010.
- 이창숙, 「부뚜막 신에게 올리는 제사」, 『문헌과 해석』 73, 태학사, 2015.
- 이훈, 『만주족 이야기: 만주의 눈으로 청 제국사를 새로 읽다』, 너머북스, 2018.
- 임미주, 「清代宮廷戲『節節好音』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장요공, 『민간전승 자료로 본 한·중 조왕신앙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최숙경, 「조신의 성격과 전승양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2, 역사문화학회, 2009.
- 國立北平故宮博物院文獻館·學苑出版社編, 『昇平署月令承應戲』, 北京: 學苑出版社, 2009.
- 內務府輯, 『欽定宮中現行則例』, 臺灣: 文海出版社, 1994.
- 羅燕, 『清代宮廷承應戲及其形態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4.
- 樂保群, 『中國神怪大辭典』, 北京: 人民出版社, 2009.
- 廖海波, 「世俗與神聖的對話—民間寵神信仰與傳說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 李露露, 『中國節』,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5.

- 李現紅, 「從祭竈時間的確立看竈神信仰文化的變遷」, 『民俗研究』3, 山東大學, 2012.
- 林濤編, 「清朝野史大觀」, 『正說清朝三百年』,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5.
- 史金波主編, 『中華大典·民俗典·地域民俗分典』, 北京: 北京日報出版社, 2015.
- 薛曉金·丁汝芹主編, 『清宮節令戲』(下), 北京: 新華出版社, 2015.
- 楊連啟, 『清末宮廷承應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12.
- 楊福泉, 『竈與竈神』, 北京: 學苑出版社, 1995.
- 楊波·楊學旺, 『郵票上的神話與傳說』, 北京: 北京時代華門書局, 2016.
- 王驥, 「范成大與民間文化」, 王棟等編, 『民俗論叢』,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89.
- 王芷章, 『清昇平署志略』,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章乃煒, 『清宮述聞』, 北京: 紫禁城出版社, 1988.
- 曾凡安, 『晚清演劇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10.
- 向斯, 『紫禁城帝王生活』,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2015.

\* 이 논문은 2021년 9월 6일에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0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Kitchen God  
Worshipping the Qing Imperial Household  
- Focus on the Festival Court Plays *Jie Jie Hao Yin***

Im, Miju\*

The Qing Dynasty established by the Manchurian regime, established a unique culture of Kitchen god worshipping(祀竈) which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dynasties. The Qing Dynasty palace performed Festival Court Plays, a professionally created play to commemorate the Day of Kitchen god worshipping forming a ritual for the Day of Kitchen god worshipping of the Qing Dynasty.

*Jie Jie Hao Yin*(『節節好音』) is a script collection produced by Qing Dynasty's imperial storehouse that includes 8 different types of the Day of Kitchen god worshipping's Festival Court Plays.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祀竈節戲) reflects the various the Day of Kitchen god worshipping customs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rituals of the Kitchen God(Zaojun竈君).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 mainly covers centering on the three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Yin Zifang*(陰子方), *Lü Mengzheng*(呂蒙正), *Fan Shihu*(范石湖) who performed the rituals related to Kitchen god worshipping. In addition,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 contains useful information that reflects Kitchen god worshipping rituals and characteristics.

In the early period of the Qing Dynasty which succeeded the Ming Dynasty system, the Five sacrifices(五祀) incorporated the Kitchen god worshipping. In the eighth year of Sunzhi(順治), it was institutionalized to pay tribute to the Kitchen god worshipping in the early summer. After Emperor Kangxi(康熙), the Kitchen god worshipping as the sacrificial rites for the nation were abolished and the court officially held a memorial service on December 23rd in the lunar calendar.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 reflects this aspect of the day of Kitchen god worshipping of the Qing court. This is the result of the Qing court's acceptance of the private custom which shows the convergence of private and official customs.

As a domestic ritual of the Qing court, the Kitchen god worshipping was held in the form of

\* Hanyang University

a couple together performing a ceremony in which the emperor and the empress also participated. The characteristic of the ritual of a couple together performing a ceremony of the Qing court, in which the emperor and empress participate, is reflected in the presence of the couple holding sacrificial rites together or serving the Kitchen God(Zaojun 竈君) and his wife(Zaojunfuren 竈君夫人) together in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

The works of the dramas of Kitchen god worshipping performed on the of the *Kunning* Palace show the inclusive characteristics of *Kunning* Palace's historical rites by including the fusion of private and official Kitchen god worshipping cultures, Han and Manchuria culture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ultures, court Rites-music including plays. It can be seen the acceptance of various faith religions and the inclusiv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rites of the Qing court. This clearly reflects the Qing ruler's ideals of convergence and harmony with the court as a family and the various nationalities and cultures that make up a large-scale empire.

**[Keywords]** Qing Imperial Household, Kitchen God, Kitchen god worshipping, Festival Court plays, *Jie Jie Hao Yin*(『節節好音』), Custom of Kitchen god worshipping, Multicultural convergence